

이란, 어디로 가는가

구기연(2017)의 『이란 도시 젊은이,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 국가의 감정 통제와 개인들의 자아 구성』를 읽고

엄익란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사면초가의 이란 상황

이란이 위태롭다. 이란 경제 회생에 대한 희망은 지난 5월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란의 핵 활동을 제재와 감시 조건으로 경제제재 해제) 탈퇴 공식선언으로 사그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7월 6개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이 참여해 타결했던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이고 재앙적이며 끔찍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JCPOA 탈퇴에 놀란 영국·프랑스·독일은 자신만이라도 공동 이행 성명을 발표했으나 국제 정치질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의 참여 없이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거대한 국제 정국판 변화로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에는 제동이 걸렸고, 경제 회생도 앞날을 가늠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란 내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물가와 실업률 상승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2017년 12월에는 보수적인 종교도시 마샤드를 진원지로 정부의 부정부패 청산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여러 도시로 확산되었으며, 2018년 2월에는 자유를 갈구하는 여성들이 히잡을 벗어 던지며 곳곳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그 이전인 2009년에는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으로 1979년 이란 혁명 이래 가장 큰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이란 사회 내부에도 심한 갈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란 내 갈등은 1979년 이란 이슬람 공화국 탄생 이후 지금까지 이슬람주의와 세

속주의,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통제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40여 년 동안 반복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비록 갈등을 표출하는 주체세력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1979년 이슬람 추종자, 2009년 개혁파, 2017년 보수파, 2018년 여성 등) 이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는 한결같다. 부정부패 척결, 정의와 자유이다.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 책의 학문적·실천적 성과 및 의의

이 책은 저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2009년 이란 혁명 소요의 현장을 탐구한 내용에 기반한다. 이 책의 주인공은 이란의 젊은 세대이다. 저자는 1979년 이란 혁명 시대 젊은이와 오늘날 이슬람 제3세대로 불리며 ‘무슬림 키즈’로 양성되어 온 이란의 도시 지역 젊은이의 세대변화를 따라가며, 이란 젊은이들이 자유와 희망에 대한 열망, 이슬람의 전통적 담론과 가치 계승, 그리고 국가통제라는 삼각관계에서 어떻게 협상하는지를 보여준다. 젊은이들은 때로는 정부 감시에 복종하며 순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개혁을 부르짖으며 시위라는 물리적 저항으로 정부에 대립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다양한 자아를 연출하는 ‘카멜레온’이 된다. 저자는 정부와 종교, 그리고 자신의 욕구 사이를 끊임없이 협상하며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야만 하는 이란 젊은이들의 ‘자아 찾기’ 방식을 인류학의 학문적 틀에서 탐구하고 있다. 이란 사회 젊은 세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때로는 제3의 관찰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때로는 현지인의 입장에서 녹색운동과 그 운동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직면한 사회문제를 포착한다. 연구 주제가 민감하여 인터뷰는 대부분 ‘바시즈(이란 이라크전 당시 순교를 위해 모집된 민병대로 종전 후 이슬람주의를 앞장서서 실천, 97페이지)’의 눈을 피해 진행되었고, 심지어 작업 노트가 발각될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기록은 암호화되었다.

저자는 이란 젊은 세대를 연구해야 하는 당위성을 이란 인구학적 통계와 변화를 추구하는 그들의 저항적 성격에서 찾고 있다. 이란은 전체 인구의 약 60% 이상이 30세 이하로 젊은 국가이다. 연구 대상인 젊은 세대는 1979년 혁명 세대인 이란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세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교육과 사회화를 통

해 ‘무슬림 키즈’로 자라난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가 계획하는 방식대로 온순하고 순종적인 국민으로 자라지 않는다(7~8페이지). 오히려 글로벌화와 SNS 기술의 영향으로 이란 밖 세계와 연결되어 새로운 문화와 사상을 체득하면서 이란의 현 체제를 뒤흔든다. 국가의 경계 대상이 된 이들이 바로 이란의 사회변화를 갈망하는 세대이며, 이들이 바로 2009년 발발한 이란 녹색혁명의 주체세력이다. 따라서 이란 젊은 세대에 대한 연구는 향후 이란 사회변화의 향방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내내 독자는 한 가지 궁금증을 품게 된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세대이던, 30년 후인 2009년 개혁세대이던 젊은이들은 분명 더 나은 삶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과연 이란 사회에 희망은 있는가?”, “이란 사회가 변화한다면 이란 젊은이들은 가면을 벗고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은 국내 이란 연구에 대한 담론이 정치·경제 이데올로기나 이슬람 종교 사상에 치우친 상황에서 도시 지역 이란 신세대 문화를 인류학의 학문적 영역에서 탐구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저자의 연구를 통해 정치·경제와 종교학의 거대 담론에서만 분석되던 이란은 생활문화 차원에서 세세하게 기록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소하게 여겨져 연구영역에서 소외되었던 이란 젊은이의 평범한 일상은 새롭게 해석되었고 재탄생되었다. 본 저서를 통해 독자는 공적 영역에서만 주목받던 시아 이슬람 신정 정치체제가 사적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문화를 향유하면서 동시에 이란 정부가 양산해 내는 순종적인 무슬림 이데올로기 간 경계를 매일같이 오가며 새로운 정체성을 창출하는 이란 젊은 세대를 기록한 본 연구는 이란 사회의 밑바닥을 이해하는 데 초석이 된다.

이란은 닫힌 사회이다. 때문에 외부인이 사회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위협적으로 여긴다. 이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중동 연구자뿐만 아니라 이란과 관계하며 낯선 사회에서 문화충돌을 겪는 기업인, 공무원, 학생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정보 제공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책 소개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저자는 〈제1장, 이란 제3세대란 누구인가?〉에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저자의 연구 대상자 소개와 연구자로서 저자의 이란 사회 내 ‘자리 잡기’ 과정—다루고 있다.

저자의 연구 대상자는 ‘나슬레 세봄’으로 불리는 이란 혁명 제3세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테헤란의 부유한 지역인 북부와 북서부지역에 거주하는 고학력 전문직이다. 이들은 종교적인 면에서는 세속적이고 개방적이며, 정치적인 면에서는 반정부 성향을 지녔다. 게다가 이들은 부모세대부터 경제적 문화 자본을 구축하여 취향 면에서는 서구화되었으나 정치권력과는 거리가 멀고 개혁성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반체제적인 이웃’이라 불릴 정도로 이란에서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다. 저자는 이란 북부지역의 정체성 형성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혁명 이전인 파흐라비 왕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테헤란 북쪽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왕권을 지지하는 서구화된 부유층이 거주해 왔으며, 대부분 이중 국적자로 자녀 중 한둘은 해외에서 유학한다. 반면 테헤란 남부지역은 전통적으로 도시 빈민 계층이나 아제르바이잔 이주민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거주하던 지역이다. 따라서 테헤란 북부와 남부지역은 문화적·경제적·계급적 요소 면에서 서로 대조적이다. 이들의 서로 다른 정체성은 지역명에도 반영된다. 북쪽 지역 사람들은 도시 위쪽 거주민을 뜻하는 ‘벌리에 샤희리’로 불리는 반면, 남쪽 사람들은 도시 아래쪽 거주민을 뜻하면서 ‘퍼일 샤희리’로 불린다.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공간적 의미뿐만 아니라 ‘높은’ 혹은 그 반대인 ‘낮은’ 계층 사람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한다(18페이지). 서로 다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타자화해 이해하고 있다. 테헤란 북부 사람들은 남부 사람들을 촌스럽고 가난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로 인식하는 반면 남부 사람들은 북부 사람들을 서구 문화에 오염되고 반이슬람적이라고 생각한다.

본 장의 두 번째 주제로 저자는 현지 정착과정과 연구과정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연구 대상자와 관계하며 현지에서 ‘포지셔닝(자리매김)’ 하는 과정을 때로는 연구자로서, 때로는 친구로서, 때로는 ‘스파이’로 소개하면서 독자를 이란 사회 내부 깊숙이 안내한다. 본 연구를 위해 저자는 혁명 이후 세대인 16세 이상 31

세 이하 젊은이 총 79명(여성 47명, 남성 3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관찰법을 활용했다. 저자는 이란 사회를 탐구하기 위해 사설 영어 어학원 수강생들과 ‘라포’를 형성하면서 사적 연결망을 확대하였다. 연구 주제의 민감성으로 항상 감시와 위협에 노출되었으며, 이 기간에 이란 젊은이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안전과 생존을 위한 가면 만들기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이란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저자의 정보 수집과정 공유는 독자들이 이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학자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현지에서의 문화충격 사례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유용하다.

〈제2장, 국가의 감정 통제와 상징의 유포〉에서는 이란 공적 영역에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며, 개인의 사적 감정을 통제하는지 탐구하고 있다. 본 장에서 저자는 ‘무슬림 키즈’로 양성되는 이란 젊은이들의 심리구조를 정치적·종교적·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하면서 오늘날 이란 젊은이들의 다층화된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은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혁명이었다. 이슬람 정부는 시아 이슬람의 상징과 신화를 사용해 이슬람을 선전했으며, 이란 사회의 감시와 통제를 정당화했다. 이슬람 수사법을 노래·시·연설·선언서·포스터·벽화 등에 활용해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며 파흐라비 왕정 시대와 단절을 꾀했으며, 그 배후세력인 미국을 ‘주적(主敵)’ 혹은 ‘거대한 사탄(The Great Satan)’으로 규정해 반서구주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했다(48페이지). 이 과정에서 시아 무슬림 수난의 역사였던 ‘카르발라’ 전투가 담론화되어 이용되었다. 1,300년 전 패배한 카르발라 전투는 순교정신·저항정신·혁명정신의 틀에서 재해석되어 ‘진정한 승전’으로 재탄생되었다(51~52페이지). 재해석된 ‘카르발라 패러다임’에 따르면 1979년 이슬람 정부의 탄생은 카르발라 전투의 완성이며, 이란의 이슬람 정부는 친미 파흐라비 정권을 전복시킨 진정한 승자이다. 1,000년 넘게 묵은 과거 역사를 이용한 이슬람 레토릭은 시아 무슬림을 설득하기 충분했으며, 통제와 감시에 대한 복종을 정당화했다. 반대로 그에 대한 저항은 이슬람의 불복종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이란 정부의 이슬람 담론은 ‘순종적이며 신실한 무슬림 국민 배출’이라는 공교육 목표와 부합하면서 더욱 공고해졌다.

그러나 이란 정부의 공공 영역 정책은 ‘공’과 ‘사’라는 공간의 이분화 현상을 야기했다. 이란 정부는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서조차 이슬람 이데올로기 이행을 철저히 감시 때문이다. 개인은—특히 보수성향의 사람들은—이란 사회에서 자신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안전한 생존방식이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체득하게 되었다. 억눌리며 감시받는 공적 공간에서 개인의 감정표현은 금기시되며, 개인의 사적 감정은 온라인 공간이나 집안 혹은 친구 모임처럼 믿을 수 있는 안전망이 확보된 공간으로 숨어들어갔다. 대신 공적 공간에서는 ‘순종을 연기하는 자아’가 탄생했다. 저자는 이란 젊은이들이 생존을 위해 협상하는 과정을 환경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으로 묘사하고 있다. 어쩌면 매해 아슈라 행사에서 반복되는 이란 젊은이들의 울부짖음은 시아 무슬림 고난의 역사를 몸으로, 그리고 마음과 머리로 각인하는 의례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절규이다. 이란 젊은이들은 사적 감정표출이 유일하게 허용된 공적 종교행사를 빌어 반정부 감정을 분출하며 저항하는 것이다.

〈제3장, 불타버린 세대: 혁명 이후 세대의 자아〉는 이란 젊은이의 개인적인 고민을 통해 그들이 직면한 사회문제와 정부와의 갈등, 그리고 불안정한 정체성 형성과정을 조명하고 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불타버린 세대(Nasle-Sukte)’로 부른다. 마치 타버린 재처럼 희망이 없음을 자조하는 단어이다(74페이지). 이란의 제3세대는 이슬람식 교육을 받고 이슬람 규제가 사회를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현 정부가 외부의 적만큼이나 위협하게 여기는 ‘오염된’ 내부의 적이다. 이는 1997년 개혁성향의 하타미 대통령 선출과 함께 발아한 이란 내 시민사회 담론 등장과 관련된다. 하타미 대통령은 자유, 문명 간 대화, 시민사회와 같은 개념을 이란의 정치 논쟁의 중심으로 가져왔고, 중산층·여성·젊은이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들은 이슬람주의, 민족주의, 급진주의 좌파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기보다는 인권과 비폭력을 추구했다. 이후 학생운동을 통해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했으며, 1999년, 2003년, 200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기도 했다. 개혁성향의 젊은이들은 이제 더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외부의 적, 즉 서구를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란 사회의 문제점을 내부에서 찾으면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슬람

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하면서 정부와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란 젊은이들은 정부를 개혁 대상으로 보았으며, 정부는 젊은이들을 ‘문화 범죄자’로 보았다. 이란 내 실업률 상승, 사회에 만연한 부패 현상과 관료주의, 부의 불평등한 분배 등은 정부와 젊은이들의 갈등을 가중시켰고, SNS를 통해 공론화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란 젊은이들은 강화되는 사회 통제와 감시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정한 자신’을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엄격히 구분하며 공적 공간에서는 연극무대 위 배우가 되어 통제된 자아를 연출하고, 그리고 무대 뒤 사적 공간에서는 본연의 자아로 돌아오게 된다. 위선과 거짓말이 가득한 이란 사회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특히 히잡은 보여주기 위한 자아 연출의 가장 효과적인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히잡을 두른 걸 모습으로 여성들은 이슬람에 순종적이며, 가부장 문화에 복종하는 메시지를 공공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 여성들의 히잡 착용은 일상생활에서 작동하는 바시즈의 ‘감시의 눈’을 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이란 사회에 작동하는 구조적인 감시체제와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저자는 이란 젊은이들의 ‘자아 찾기’ 노력은 지속된다고 언급하면서 절망보다는 희망을 보고 있다.

〈제4장, 그들만이 세상 구축하기: 초국가적인 장(場)과의 조우〉에서는 인터넷과 위성방송으로 이란 밖 세상과 전례 없이 빠르고 촘촘하게 연계된 젊은 세대의 독특한 세대문화 형성과정을 다루고 있다.

오늘날 이란 젊은이들에게 인터넷은 필수가 되었다. 이란에서는 2009년 이후 인터넷 광대역망이 확충되고 스마트폰 확산으로 온라인 문화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또한 정부 검열이 엄격한 자국 방송보다는 위성방송을 통해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이전 세대와는 구별된 새로운 대중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이란 디아스포라 세대가 생산하는 남녀평등, 종교와 정치의 분리, 인권문제,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억압된 이란 사회 분위기와 대조되어 젊은 세대를 매료시켰다(160페이지). 미디어를 통한 외부의 이미지는 과장되게 표현되어 또 다른 상상속의 유토피아가 되었다. 이슬람 세계에 실망한 젊은이들에게 유토피아로 묘사된 서구는 부러움과 갈망의 대상이 되었고, 서구식 소비문화 모방을 부추겼다(168~169페이지).

그러나 저자는 이란 제3세대 대중문화가 서구화 혹은 미국화와 동일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비록 이들 세대가 미국의 패션을 추종하고 힙합·랩·헤비메탈을 즐기는 것은 하지만 ‘아슈라(카르발라 전투에서 희생당한 이맘 후세인을 기리는 날로 이슬람력 1월 10일)’와 같은 의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지순례를 하며, 라마단 단식을 하며 종교전통을 지켜나가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 이란의 제3세대는 서구 문화를 일방적으로 모방하기보다는 글로벌 문화와 이란 문화, 서구 문화와 이슬람문화, 종교문화와 세속문화 간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며, 제3의 문화를 창조하는 주역인 것이다.

〈제5장, 자아 찾기를 위한 여정: 녹색운동을 중심으로〉에서는 억압적인 정부 체제와 자유와 개혁을 갈망하는 제3세대 젊은이들이 충돌하는 2009년 녹색운동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다. 이 장은 특히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내부적인 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위협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직접 시위현장을 목격하고 시위에 가담한 젊은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독자에게 이란 내부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면에서 이 책의 정수로 꼽을 수 있다.

2009년 6월 제10대 이란 이슬람 공화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발표된 13일 밤은 이란인에게 1979년 혁명 이래 가장 긴장되고 극적인 순간이었다. 30년 전 파흘라비 왕정에 대항하여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던 앵겔럽 광장은 이제 이슬람 정부의 부정부패 타도를 외치는 장이 되었다. 녹색운동은 당시 개혁파 후보였던 미르 후세인 무사비가 이슬람의 상징색인 녹색을 자신의 이미지 색으로 활용하면서 시작되었다. 개혁파가 당선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보수 강경주의자인 아마디네자드가 당선되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젊은 세대가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하타미 정권 8년간 유년과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자유와 개혁을 맞았던 ‘하타미 키즈’로 불리던 세대이다. 젊은이들은 초록색 솔을 머리에 두르고, 초록색 히잡을 쓰고, 초록색 겹옷을 입고, 초록색 머리띠를 두르며 녹색운동에 참여했다. 녹색은 더 이상 이슬람의 천국의 색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저항의 색으로 탈바꿈했다. 비록 젊은이들의 정치적 이념과 입장, 종교적 성향은 달랐으나 녹색은 이들을 하나로 묶는 연대의 색이 되었다. 2009년 녹색운동은 이슬람 공화국 수립 이후 최초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고, 유행 사태로 진화했다. 녹색은

동의 현장에서 젊은 세대는 사적인 공간에 갇혀 있던 자아를 해방시켰다. 그리고 광장으로 나와 “이번에는 바꿔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란 사회를 멍들게 만든 고질적인 사회문제들은 이제 광장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SNS, 그리고 뉴미디어의 도움으로 온라인에서도 공론화되었다. 저자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자신밖에 모른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젊은 이들이 녹색운동을 계기로 정치에 눈을 떴다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 정부가 주장하는 이슬람과 대중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슬람의 괴리 때문이라는 답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슬람을 정치화하여 대중을 선동하고 복종하는 이데올로기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 특히 젊은 세대는 이슬람이 종교의 영역에만 머물기만 희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제6장, 나오며: 개혁의 희망, 이란 도시 젊은이〉장에서 녹색운동의 주역들이 사회 약자에서 주류로 도약하는 그 시점을 기대하며 미래에 대한 절망보다는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 2013년 개혁파 후보였던 하산 로하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2016년 이란 핵 합의 타결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 내부에서도 희망이 꿈틀거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핵 합의 탈퇴 선언으로 이란 경제는 먹구름이 끼고, 이란 사회는 다시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이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이란에 희망은 있는가”라는 물음에 아직은 그 답을 찾기는 어려운 듯하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올 때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새로운 세상으로 도약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이란 젊은 세대도 어찌면 새로운 시대로 전진하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격동기에 내적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아쉬운 점과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 저자는 이란 젊은이들을 탐구하기 위해 테헤란 북부지역 젊은이들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란 내에서 ‘반체제적인 이웃’으로 지칭되며, 부모세대부터 그들만의 독특한 경제적·문화적·정치적 특성을 유

지하는 그룹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란 제3세대 전체의 특성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즉, 본 저서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이란 젊은이들 목소리로 대표되면서 친정부 보수성향의 정치권력을 형성하는 ‘또 다른’ 이란 젊은이들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친정부 보수 성향을 지지하는 이란 젊은이들 역시 정의로운 이란 사회 건설을 갈망하는 젊은 세대이며, 오늘날 이란 사회의 한 단면을 구성하는 주체이다.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시위가 2017년 12월 보수적인 종교도시 마샤드에서 표출되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어쩌면 저자는 자유와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저자가 선택한 렌즈만을 통해 이란 사회를 보고 있는 듯하다. 향후 연구에서 다양한 이란 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면 이란 사회에 관한 연구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투고일: 2018년 5월 23일 | 게재확정일: 2018년 7월 26일